

---

## 풀잠자리 알이 인도의 우담바라꽃을 대신한 사연

---

박 해 철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1997년 광주에 있는 우리절이란 곳에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한국경제, 1997.8.15자). 그 후 몇 곳의 절집에서 우담바라 꽃이 관찰되어 우담바라의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었다. 우담바라가 피면 상서로운 일이 생길 징조이고, 여래나 전륜성왕 같은 이상적 제왕이 나타난다고 불가의 전설에서 전해져 오기 때문이다. 마침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심신이 지친 국민들에게 들려온 우담바라 꽃의 이야기는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였다. 이에 걸맞게 부처님의 몸에 우담바라가 피었다는 몇몇 절집은 신도들의 참배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방송과 신문 등 여러 대중매체 역시 신이 났다.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대었다. 그들은 신비주의적 관점으로 우담바라의 의미와 참배행렬의 모습을 다루었다. 그러면서도 우담바라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진위논쟁을 벌이면서 절집에 나타난 우담바라를 단순한 생물체의 흔적으로 끌어 내리는 양면작전을 구사해 대었다. 재미있는 것은 영문도 모르는 곤충전문가들이 여럿 혼이 났다는 점이다. 언론 매체에서 우담바라의 실체를 밝힌다고 곤충 전문가들에게 보여주면, 모두가 “풀잠자리 알이네!” 했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거봐라 이게 풀잠자리 알인데 이렇게 참배를 하다니”하는 투로

보도 글과 화면의 끝맺음을 하였다. 그러는 통에 우담바라의 신성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부 성난 불교신자들이 걸어온 항의 전화 때문에 곤충전문가들만 곤욕을 겪곤 하였다. 마침내 “풀잠자리 알도 우담바라(중앙일보 11월 6일자)”란 제목으로 글도 나갔지만, 해마다 풀잠자리 알과 우담바라의 출현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흥미있는 기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과연 불교가 시작된 인도에서 우담바라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풀잠자리 알을 우담바라라고 하는 것인가? 종교적인 대상으로서의 우담바라와 생물학적 실체로의 풀잠자리 사이에는 무엇이 얽혀있는 것인가? 이 같은 의문을 문화곤충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재밌고도 흥미로운 궁금증을 풀어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자! 각각의 궁금증의 끈을 잡아당겨 답을 만들어보면서 우담바라와 풀잠자리를 어떤 눈으로 보게 좋을 지를 살펴보자.

### ∴ 우담바라는 본래 무엇인가

원래, 우담바라(優曇婆羅)는 산스크리트 말의 소리(udumbara)만 따서 적은 것이다. 인도에서는 *Ficus racemosa*라는 학명을 가진 나무로서, 그 나무 자체뿐 아니라 꽃 그리고 열매 모두를 우담바라라고 부른다. 이 나무는 인도대륙과 동남아시아, 호주 대륙까지만 분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는 없다. 나무의 키가 20~30m가 될 정도로 크면서도 나무 몸통과 가지에 송이를 지어 열매가 달리는 까닭에 서양 사람들은 송이무화과나무(Cluster Fig Tree)란 뜻으로 이름을 부른다. 특히,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남부지방에만 자라는 무화과나무와 가까운 친척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름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우담바라나무는 꽃이 없어 보인다. 그저 열매만 달려있는 듯하다. 직경이 1~1.5cm 정도 된 돌베처럼 열매가 생겼다. 그런데 열매처럼 달린 것이 일종의 꽃이다. 겉살은 원래 꽃받침이 자라서 향아리처럼 둘러싸 오고 그 끝에는 배꼽처럼 생긴 구멍이 있다. 바로 그 안에 작은 꽃이 꽃받침 살에 촘촘하게 달려있게 된다. 그러니 겉에서는 꽃이 보이지 않고, 쪼개봐야 곤봉처럼 생긴 암술이 촘촘하게 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나무의 사촌쯤 되는



《우담바라(*Ficus racemosa*)의 열매처럼 보이는 속에 진짜 꽃이 있다. 나중에 진짜 열매가 된다.  
(사진©Dinesh Valke)》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우리 불교의 우담바라는 때때로 연꽃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무화과나무 역시 마찬가지이다. 무화과란 이름이 꽃이 피지 않고 과실이 달려 생긴 것이다. 하지만 열매처럼 생긴 꽃받침 속으로 아주 작은 벌들이 들어가 꽃가루받이를 해 준다. 그래서 익으면 과실이 되는 것이다.

인도지역에서 공부한 원불교 홍인경 교무의 글(원불교신문, 1156호)에 의하면 우담바라 꽃에 대한 인도 지역 사람들의 관념이 잘 드러나 있다. 산스크리트어 학자들은 우담바라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분명 꽃이 있지만 너무 작아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반면에 인도사람들은 우담바라는 해마다 이삼일 정도 밤에 피는 꽃으로 이 꽃은 밤에만 피기 때문에 꽃을 보기가 아주 어려워 천복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둘 다 꽃은 있지만 작아서 또는 밤에만 일 년 중 아주 잠시에 피워 못 본다고 하니 그 희소성과 특별함이 얼마나 각별한 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남전스님(불교신문 2363호)에 의하면 인도에서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나타날 때 핀다는 상상과 전설의 꽃으로 상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3천년 만에 한 번 핀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것이 중국쪽으로 넘어와 “담화일현(曇華—現)”이란 고사성어로 함축되어 전해지는 것이다.

과연 우담바라가 불교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일까? 남전스님(불교신문 2363호)에 의하면 불교경전에서는 드물고, 귀한 것에 비유를 할 때 우담바라가 나오고, 구원의 뜻으로도 이용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는 여래의 묘음을 듣는 것은 드물고 귀한 일로 우담바라를 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또한 <법화경>에서도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없어 적은 지혜로는 알 수 없으며 마치 우담바라가 때가 되어야 피는 것과 같다고 한다. 또한 <무량수경>에서 이 나무는 꽃이 감춰진 식물로 그 꽃이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은 상서로운 일이 생길 징조라고 했다. <법화외소>에서는 이것이 공기 속에서 피어난 꽃으로 인도에 그 나무는 있지만 꽃이 없고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면 그 꽃이 핀다고 설명되어 있다. 아울러 <불본행집경>에서는 우담바라가 필 때 중생이 구제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기도 하다. 즉, 전륜성왕의 기다림을 소망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불경 속에서는 피어난 우담화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큰 영광이며, 구원에 버금가는 것인지를 비유로 잘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국보 제12호로 지정된 화엄사 각황전 앞에 있는 석등은 서기 670년 의상대사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적인 모양이 우담바라 꽃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거나 덮개석에 우담바라 꽃잎 문양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우리 불교에서 우담바라가 때로는 연꽃을 의미한 경우도 있어서 생긴 오해로 비롯된 것일 게다.

**∴ 풀잠자리는 잠자리의 일종인가?**

“풀잠자리”란 이름만을 들어보면, “잠자리의 한 종류이구나”하고 오해하기 쉽다. 이름의 대부분을 잠자리가 차지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족보를 들여다보면 잠자리와는 관계가 아주 멀다. 풀잠자리의 날개 생김은 얇은 막으로 생겼으면서 그 안에 그물처럼 촘촘한 날개 맥을 갖고 있어서 잠자리의 날개를 떠올리게 한다. 이들의 몸 역시 가늘고 길쭉한 것이 잠자리의 사촌쯤 되어 보인다. 다만, 몸이 연푸른 녹색으로 풀빛을 띠어 풀잠자리라 이름 붙인 것이다. 곤충의 이름이란 원래 사람의 눈으로 보고, 붙이는 것이지 곤충 그들의 족보를 제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탓에 성은 풀씨요 이름은 잠자리인 것처럼 많은 오해를 받아오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풀잠자리를 본적이 있는데, 유심히 보지 않아 본인이 봤던 것이 풀잠자리인지 잘 모를 뿐이다. 이들의 성충은 몸이 10~20 mm에 불과할 뿐 아니라 매우 가냘픈 모습을 한다. 여름에서 초가을 밤에 방충망의 덜 단한 틈으로 불빛에 이끌려 집안으로 들어와서 실내등 주변을 맴도는 풀색 잠자리가 바로 이들이다. 또한 만지면 고약한 냄새가 나서 사물을 유심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풀잠자리는 모두 풀잠자리목에 속하는 무리를 이르는데, 곤충 진화학자의 의견으로는 풀잠자리가 잠자리보다는 훨씬 고등한 곤충으로, 오히려 딱정벌레의 조상과 더욱 가까운 무리라고 한다.

**∴ 풀잠자리의 알이 어떻게 생겼길래 ?**

풀잠자리는 알을 식물의 잎이나 줄기 같은 곳에 낳는다. 어미는 알을 낳



《갯오풀잠자리. 몸이 풀색을 띠고  
잠자리처럼 생긴 날개를 갖고 있다.》



《풀잠자리의 알. 우담바라나무 열매처럼 생긴 꽃받침 속에는  
이 같이 생긴 암꽃들이 백백하게 들어 차 있다.》

는데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다. 알을 낳으면서 긴 줄기를 세우고 그 끝에 알을 붙여 매달아 놓는다. 언뜻 보면, 하얀 긴 꽃대 위에 매달린 작은 꽃송이처럼 말이다. 특히, 한 번에 적게는 대여섯 개부터 수십 개까지 알들을 무리로 매달아 놓는다.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는 알들의 모습을 보면, 작은 꽃술무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미세한 버섯과 같은 균류의 곰팡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알이 깨어 나가고서 그 모양 그대로 있어서 우담바라의 초기 논란 중에서 그 모습으로부터 전혀 곤충과 관련성을 찾지 못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곤충학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모습을 가진 것이 풀잠자리의 알이다.

이처럼 풀잠자리 알이 사람들의 상식을 파괴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풀잠자리 어미의 크나큰 배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곤충들이 여러 개의 알을 함께 낳는 경우에 먼저 깨어난 애벌레가 미처 깨나지 못한 자신의 형제인 알을 먹어치우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이다. “어떻게 형제를 먹어!”하면서 눈살을 찌푸릴 수 있지만 인간무리에서도 식인습속이 사라진 것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더욱이 곤충의 세계에서는 인간처럼 제레와 같은 의식을 위해서 동족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동족을 먹은 애벌레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튼튼한 몸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많은 알 가운데 일부만 살아남게 된다. 만일 먹이 조건이 풍부하다면 동족 포식을 줄이는 것이 집단에게 유리할 것이다. 다른 먹이가 풍부한 만큼 낳은 알 가운데 많은 개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 말이다. 풀잠자리가 알을 긴 대에 낳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알줄기를 잘라 바닥에 놓은 알들에 비해서 긴 대를 이용한 풀잠자리의 알에서 깨어나온 애벌레들이 생존력이 더 높았다. 그 알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풀잠자리의 어미는 자신의 새끼들이 많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지혜를 짜낸 것이 바로 특이한 산란 방법이었던 것이다.

### ∴ 과연 풀잠자리 알은 성스런 우담화가 될 수 있나?

우담바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미 남전스님(불교신문 2363호)이 잘 정의한 바 있다. 전설 속의 또는 신앙의 의미로 다가오

는 경우는 상징의 의미로 다가서야 한다고 말이다. 그럼 여기서 하찮게 여기는 벌레의 알이 과연 불교의 징표가 될 수 있을까? 현대인의 대부분은 곤충을 한낱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인류 문화사 속에서 오랫동안 곤충이 신이었거나 신적 대리물로 추앙받아온 역사가 있어왔다. 이집트 문명 속에서 적어도 천년 이상 소똥구리가 태양신으로 모셔졌고, 힌두교에서 연꽃 위에 앉은 꿀벌은 비슈누 신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교에서 나비는 부활을 상징하기도 했다. 문제는 풀잠자리 알의 경우에는 본래 인도지역에 존재하는 우담바라나무의 꽃이 아니라 그 식물이 분포하지 않는 동북아 지역에서 그 식물의 꽃을 대신했다는 데 있다. 우담바라의 실체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과연 그럴까? 한번 종교의 역사 속에서 짚어보자.

어떤 종교에서든지 발상지에서 시작되어 먼 곳으로 가면 갈수록 본래 발상지에만 존재하였던 성스러운 상징들이 다른 것들로 대응된 사례는 적지 않다. 기독교에서 선악과 하면 보통은 사과를 쉽게 떠올린다. 15세기 독일 화가 슈테판 로흐너(Stefan Lochner)의 성모자(Madonna of the Rose Bower) 유향그림에서 어린 예수는 선악과의 상징으로서 사과를 들고 있다. 정말 선악과가 사과나무였는지는 부질없는 논쟁이다. 다만, 우리들이 사과라고만 알게 된 시점은 유럽으로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로 보고 있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성지주일(성지)이 있는데, 이 날은 사제가 축성한 성지가지를 가져다 집집마다 십자가 뒤에 꽂아두고 이듬해 재수요일까지 정성스럽게 모신다. 이 의식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식물이 없으므로 측백나무 가지를 대신 이용한다. 즉, 원래는 종려나무 가지를 써야 하지만 전래된 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으므로 대응한 것이다. 이처럼 종교마다 자신의 상징물이 발상지에만 존재하고, 전파된 곳에는 상징물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대응물을 채택하는 것은 관례일 수 있다.

풀잠자리의 알이 우담바라가 된 사연도 비슷하리라 생각된다. 사실 동북아 지역은 우담바라나무의 분포지가 아니므로 그 지역 불교신자들에게 우

담바라는 보고 싶어 해도 볼 수 없는 식물이었다. 지금처럼 운송수단이 좋다면 몰라도 고대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신앙의 전래과정에서 우담바라의 존재는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된 후에 더 필요한 것이 되었을지 모른다. 동북아로 도입된 대승불교에서 신도들은 영겁의 시간 속에 신처럼 존재하는 수많은 부처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격화된 여래가 도래하는 것을 예지해 주는 우담바라의 존재 의미가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하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 추리하건대 오랜 역사 속에서 인도 현지에 있고 동북아 지역에 없는 우담바라를 보고 온 또는 책으로 접한 불자가 자신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모습을 찾았으리라. 그것이 바로 풀잠자리의 알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근사한 대용물로 인식된 풀잠자리의 알은 그 후 지금껏 우담바라의 상징적 가치를 계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인도의 식물인 우담바라의 꽃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신앙의 성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 온도차를 느끼게 하는 우담바라에 대한 동북아 민족들

우리의 한국불교대사전을 보면“우담화는 우담발화라고도 하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때에야 비로소 핀다고 한다. ... 또 풀에 청령(잠자리)의 난자(알)가 붙은 것”이라고 적혀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동아한대사전 등에서도‘우담화’는“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의 꽃”이라는 뜻과 함께 “초부유(풀잠자리)의 알”이라는 뜻을 첨언해 놓았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풀잠자리 알에 대한 우담화 인식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한자 문화권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다. 최근에 해외의 블로그와 뉴스를 통해서 중국, 티벳, 일본 등지에서 풀잠자리의 알을 우담바라로 여기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이나 다른 서구 나라의 불교 포교과정에서 우담바라가 발견되고 소개한 글도 등장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만큼 다른 민족들은 그리 유난스럽지는 않았다. 중국의 경우, 최근의 우리나라 우담바라 보도를 따다가 소개하거나, 우담바라의 발견에 다소 흥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이 원래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인지, 한류의 영향인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비교적 냉정한

편이었다. 일본의 유명한 곤충학자 야스토미 카즈오의 글(1998)에서도 풀잠자리의 알을 우담화(烏담花)의 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일반인 역시 우담바라가 갖는 전설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풀잠자리의 알이라는 것을 함께 소개하면서 그저 호기심 어린 정도로 보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일본에서 처음 우담바라를 소개한 것이 기젠 도조란 유명한 승려로서 이심전심을 표현하는 꽃으로 우담바라를 소개했다고 한다. 이처럼 그들의 냉정함은 불교 전래 후, 한참 뒤인 13세기에야 비소로 소개된 까닭인지도 모른다.

**∴ 우담바라만큼 인간에게 기여하는 풀잠자리**

이 곤충의 애벌레는 풀밭과 잡초, 나무와 관목의 잎과 줄기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종들이다. 특히,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영락없이 존재한다. 긴 다리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머리 앞으로 길게 뻗은 가위처럼 생긴 큰턱으로 진딧물을 찢어서 체액을 빨아들여 죽게 만든다. 마치 진딧물의 저승사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서양인들은 이들 애벌레를 진딧물사자(aphid lions)라고 불렀다. 일부의 애벌레들은 어린 시기에는 먹고 난 잔해를 자신의 등 뒤에 올려놓는 습성이 있어서 마치 망태기를 지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풀잠자리가 진딧물을 잘 잡아먹기 때문에 작물을 하우스에서 재배하거나



《풀잠자리 애벌레. 머리앞으로 튀어나온 큰턱이 무시무시해 보인다.》

또는 야외에서 재배하든지에 상관없이 주로 유기농재배를 하는 전 세계의 농민들은 무당벌레만큼이나 풀잠자리를 애용한다. 농민들은 인공적으로 사육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천적 공급 회사들을 통해 주로 풀잠자리의 알을 공급받는다. 농민은 이들을 가져다가 진딧물이 발생하는 작물에 붙여놓으면 알에서 깨어난 풀잠자리 애벌레가 본격적으로 진딧물 같은 해충을 구제하러 다니게 된다. 풀잠자리의 능력은 무당벌레 못지않기 때문에 진딧물 사냥에서 서로 막상막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무당벌레의 서양 이름인 레이디비틀(ladybeetle)이 성모마리아를 상징하고 성스런 벌레처럼 여겨졌던 것도 중세 서양인들의 심각한 해충인 진딧물 포식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다. 풀잠자리는 무당벌레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반면에 이들의 알이 지닌 특이한 모습 때문에 동양의 불교에서 성스러운 우담바라의 상징으로 이용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들의 능력과 문화곤충학적 역할은 상당히 닮은 면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때까지 우리는 곤충을 단순히 하잘 것 없는 생물로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담바라의 논란을 통하여 단순한 곤충 알의 의미가 아닌 한 종교의 상징성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과학이 잘 발달되었다는 현대의 한 복판에서도 그 의미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존재는 그런 것이다. 가장 과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내면적 심성 속에는 많은 것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다. 더욱 진화하는 점집들을 본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므로 눈을 좀 더 넓히면 곤충이 인간의 문화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을 더 많이 찾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인연으로서 곤충뿐 아니라 나쁜 인연으로서 곤충들도 말이다. 악하다 좋다하는 것은 그저 우리 맘속에 있는 잣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